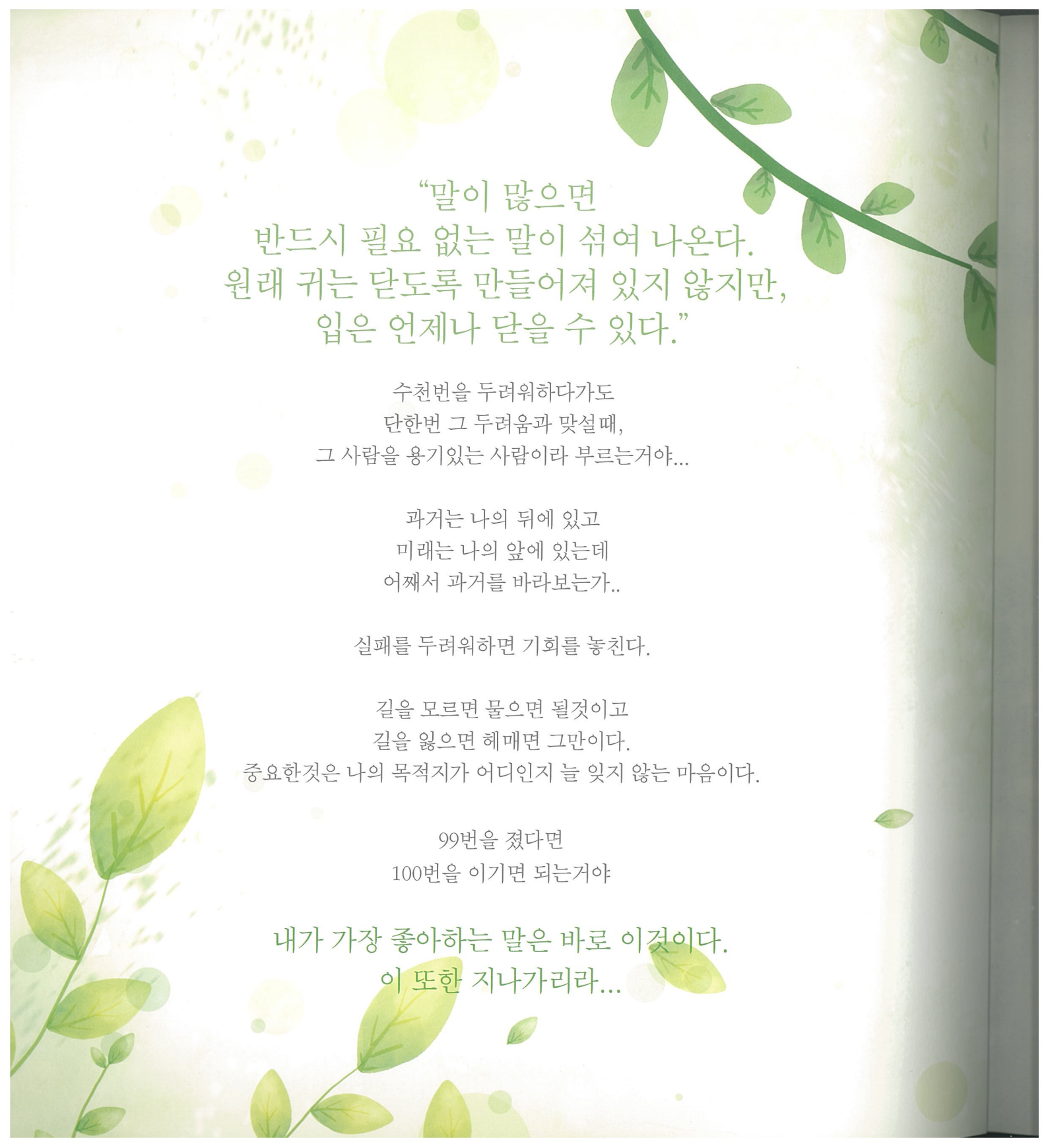


Summer Vol.10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실천

EM실천
Empowerment Society



“말이 많으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단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다.”

수천번을 두려워하다가도
단한번 그 두려움과 맞설때,
그 사람을 용기있는 사람이라 부르는거야...

과거는 나의 뒤에 있고
미래는 나의 앞에 있는데
어째서 과거를 바라보는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를 놓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99번을 졌다면
100번을 이기면 되는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실천

발행일 2011. 7. 25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만든이 EM실천 총무기획팀
전화 02.875.9744, 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04



08



12

Contents Summer Vol.10

- 04 **프로그램 소개**
 - 한마음체육대회
 - 자원봉사활동
 -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지점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취업유지모임
 - 근로장애인 역량강화
- 18 **노동부사회적기업날개달다**
 - 김영환원장
 - 김용득운영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2 **추천도서**
 - 우편발송사업부 경향미
 - 총무기획팀장 박미선
- 24 **여름이야기 “더워야 더워야”**
- 26 **News**
- 28 **금천구사회적기업 소개**
- 31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 32 **금천구사회적기업가네트워크(광고)**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 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은세상과 함께한 한마음체육대회”

2011년 6월 3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EM실천과 조은세상이 함께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따가운 햇볕아래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체육대회가 시작됐다.

아직은 어색한 듯, 쭈뼛쭈뼛 줄을 서고, 임성수팀장의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한 후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인간뽕틀뛰기

사람이 뽕틀이 되어, 사람이 사람을 뛰어 넘는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뽕틀뛰기 손을 짚고 해야 정석이지만 '이기기 위해, 더 빨리 뛰기 위해' 대다수의 회원들은 손을 짚지 않고 무작정 뛰었다. 결과는?.....조은세상 승!!

여자피구대회

축구만큼이나 기대가 컸던 여자피구대회. 생각지 못했던 여자회원들의 활약으로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진행되었다. 공에 맞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고,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 공을 던지며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하였다. 힘찬 응원과 열심히 뛰어준 회원들 덕분에 이번 경기는 EM실천이 승리했다. 지고 있던 EM실천에게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값진 승리였다.

여왕닭싸움



한 쪽 다리를 들고 쿵쿵 뛰며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의 왕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돌격 앞으로~

넘어지고, 넘어뜨리며 참여 선수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넘쳐난다. 상대방의 왕을 무너뜨린 최후의 승자는?

이번에도 역시 조은세상이 승리!

아쉽지만 축하의 박수를 쳐주는 EM실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축구게임

체육대회의 꽃! 축구.

각 팀에서 남자회원들이 출전하여 경기가 진행되었다. 공을 따라 멋진 기술을 선보이며 골을 넣는 EM실천과 조은세상 팀원들.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팀원들에게서 가장 밝고 환한 웃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열기를 이어 다음경기는 번회경기인 여자축구가 진행되었다. 공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 회원들과 직원들은 패스도, 드리블도 매우 미숙했다.

하지만 각 팀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아주 열심히 뛰었다. EM실천의 박미선팀장의 활약으로 여자축구는 EM실천의 우승으로 돌아갔다.



▲ 좌측부터 (고미나, 양현모, 김영환, 이회자, 임영기)



신발멀리던지기

작년에도 진행되었던 신발멀리던지기 경기는 누구보다도 EM실천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특별휴가가 걸려있는 경기는 만큼 모든 팀원들에게서 승부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경기는 2회로 진행되어 담장을 넘기면 특별휴가가 제공되는데, EM실천에서는 2회 모두 신영권님이 담장을 넘겨 특별휴가를 받게 되었다.

1등을 한 조은세상과 EM실천의 팀원들에게 선물이 지급되었다.



단체줄넘기

김영환원장님이 직접 참여한 이번 경기에서는 총 10회를 뛰어, 뽀 힛수의 합의 가장 많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두 번의 연습을 하고 10회를 뛰었는데, 20회를 넘기지 못한 조은세상에 비하여 EM실천은 40회를 넘기며 가볍게 우승하였다.



이어달리기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종목인 이어달리기는 각 팀원들이 직접 라인이 되어 4명의 선수가 이어 달리는 경기이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다들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각 팀의 선발주자는 구호의 울림과 동시에 앞다퉈 달리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응원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달리는 사람은 응원소리에 더욱 힘을 가했다. 남자회원 못지않게 여자회원들도 빠른 속도로 뛰었으며, 큰 이변 없이 조은세상의 승리로 끝이 났다.

따사로운 햇볕아래 회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즐겁게 참여한 한마음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조은세상과의 연합체육대회를 기대해 본다.

글 : 총무기획팀 고미나 사회복지사

KB *b 국민은행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직원과 함께하는

신나는 자원봉사활동

영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지점 직원들의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소감 및 인증샷!



김승묵팀장

가산테크노타운 지점의 김승묵 팀장입니다. EM실천 여러분들과 같이 일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구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저희 은행 직원들은 큰 보람을, 그리고 EM실천 모든 분들에게는 큰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송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시간 즐겁고 보람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성과장

김은성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약간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도 좋고 다함께 답소도 나누면서 편하게 일할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희망이 피어나는 신바람 나는 좋은일터 모든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하세요.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경민

유쾌 · 상쾌, 통쾌한 만남!
정말 유익한 만남이 었구요.
2팀의 즐거운 만남을
기억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숙경

지점에서 여직원 중의 막내~...*
지숙경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생애기도 하면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정상일팀장

즐거운 주말을 보낸 듯합니다.
여러 동료들과 이런저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며 또 봉사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듯하여 보람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최은석

작년에 이어 2번째 참가하는데 직원 모두 활기차 보여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또 올게요.



장기좌

토요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밝은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열심히 일하고 갑니다.

직원들 모습에서 항상 건강한 웃음 배우며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일우 지점장님과 MINI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엠실천 우편발송부 황찬희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지점 임직원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Q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들이 들어오는데 환한 웃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EM실천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EM실천과 우리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지점은 지난해 6월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그해 일백만원의 기부금으로 EM실천에 프로젝터를 지원해준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기부금 일백오십만원과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Q EM실천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된 건가요?

인터넷과 주민센터를 살살이 찾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을 찾던중 우연히 EM실천을 알게 되어 직접 찾아왔고 그때당시 박미선 팀장과의 첫만남이 기억납니다. EM실천을 찾아와 박팀장에게 명함을 건내주자 세일즈목적으로 찾아온줄 알고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면 돌아서더군요. 다시한번 방문목적을 설명해주었더니 그제서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이후 자주 방문하면서 우리의 뜻을 설명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Q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은?

네,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은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할때 '아! 오늘도 잘왔구나'라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직원 모두 주말이라는 귀한 시간에 이곳 EM실천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시간보다도 뜻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맘만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국민은행 직원모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함께 할수있는 EM실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복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자원봉사참여자 대표로써 EM실천 근로장애인과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한다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2011년 EM실천 여름캠프의 운영예산으로 잘쓰겠습니다.

매년 소중한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즐겁게 봉사활동해주시는 국민은행 모든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좋은 이웃이되길 바랍니다.

AMORE PACIFIC 과 함께 한 자원봉사

2011년 6월 11일, 그녀들이 달라졌습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여자로서 **美**를 잊고 지내던
EM실천의 여성근로장애인들이 달라 졌습니다.

‘샤방샤방’ 빛나는 얼굴,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들반들한 광택의 피부, 역쉬 그녀들의 변신은 무제입니다.



아모레복지재단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직원 12명이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여성근로장애인들의 피부마사지를 위해서...

토요일 아침 들뜬 마음으로 한껏땀을 부린 EM실천 여성분들, 특히 이희자님은 개나리 꽃도 올고갈 차림의 연노랑 정장차림으로 평상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스킨과 로션으로 기초를 다지고 톡톡톡톡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의 능숙한 손놀림과 설명을 열

심히 따라하는 그녀들.. 스킨과 로션만 했을 뿐인데 오늘 따라 웬지 달라보이는 그녀들..에센스후 마사지 팩을 바르고 약 10분정도 서로의 우스운 얼굴을 바라본후 그녀들이 달려졌답니다. 빛나는 광채의 피부~ 따사로운 햇살이 도망갈 정도로 빛이 나더군요.

자원봉사자들은 간단한 핸드마사지와 피부관리법을 가르쳐 주었고 EM실천의 그녀들은 어느때 보다 열심히 따라하며 그동안 궁금했던 미용상식들을 질문도 하며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들의 변신한 모습 감상해 보실래요?’



바쁜시간 내어 EM실천을 찾아주신 아모레 퍼시픽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후 후원물품도 주셨어요. 좋은 물품도 감사드리고 담당하셨던 아모레 퍼시픽의 박미선님 다음엔 메이크업봉사 부탁해요~~ .. 아모레 퍼시픽 봉사활동담당자와 EM실천 담당자가 동명이인인 박미선님 이시더군요. 봉사활동처를 선택 할 때 고민없이 했다는 말에 제이름(EM실천 총무기획팀장) 박미선이라는 것이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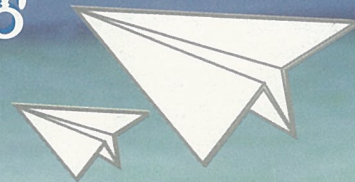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지체하지 않고 출발하였다. 주말이라 서해안 고속도로가 조금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맛나는 먹거리와 이야기들로 풍성함을 느끼며 안전도로 Let's go!



10시경에 동작구휴양소에 도착하여 늦은 저녁식사를 준비하였다. MT의 기본인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먹으며 강영혜씨의 라이프스토리를 늦은 시간까지 듣고 공감하고, 질문하고, 조언하며 이전에 없었던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늦으막히 잠자리에 들어 눈 깜짝할사이에 아침을 맞이하였다. 아침은 조미료 한방울 들어가지 않은 김치퐁치찌개를 메인으로 맛나게 해 먹었다. 간단한 세면을 하고 근거리에서 있는 한적한 섶별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보리밭이 한창이었으며 마음을 한층 더 들뜨게 했다. 한적한 해수욕장에서 거닐고, 사진찍고 시간을 보내며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숙소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하고 인근에 있는 청포대해수욕장에 들러 맛조개 잡는 풍경을 구경하며 입맛을 다셨다. 모두가 먹고 싶어하는 활어회를 찾아 백사장항으로 가서 배불리 회를 먹었다. 회로만 배를 채운것은 난생처음인것 같다. 추억을 뒤로 한채 일찌감치 서울로 향했다.이른 출발덕분에 늦지 않게 서울에 도착하여 각자의 주말을 즐기러 헤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고 좋은 추억 하나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봄날의 작은 비행”



이번 여행에 전체적인 느낌은[어느 봄날의 작은 비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진다. 어둠을 달려 도착한 안면도에서 우리는 한 소녀에 꿈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속에, 나에 살아온 모습도 함께 스쳐 지나가는 듯 했으니까요.

다음 날 바다를 보며 작아지는 먼지 같은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함께여서 함께여서 소중한 삶이고, 포근한 행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점프하며, 가슴속에 두려움을 멀리 저 멀리 날려 보내는 듯하였습니다.

나도 소중한 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펼쳐진 모래사장 안으로, 새는 비상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날고 싶다.’ 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훨훨- 어느 외딴 섬에 단거든, 다친 날개 물에 적시고 후회 없는 비행이었음을 내 스스로에게 다독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껍질 모우는 아이를 보며 하늘같이 그 꿈 그 행복 놓치지 말았음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실에 벽에서 자신이 바라는 온전한 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길...

기억은 추억으로 다시 내 삶을 살 찌어주고 있을 텐데, 뒤를 돌아보아도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진 말길 바래 보았습니다.

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 틈에서 한발 물러나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던 소년을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 땐 ‘내 앞엔 바다가 있었지’ 하며 바다 숨 한번 들이마시는 여유를 배우고 싶었나 봅니다.

모두에 행복을 빌어주고, 나에 행복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나로 거듭나고 싶어지는 욕심이 들더군요. 바다.. 어머니.. 상처 입은 날개.. 비상.. 꿈..

‘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 다시 돌아봅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나의 별들에게 지혜와 용기 함께하길 바라며 글을 접으려 합니다.

2011. 05. 23 月 PM 11:30

잠자리에 들기 전, 어느 소년 흐느끼며 퍼덕이다..

근로사원 박 동 진





“정신장애인의 자립심 및 취업욕구 향상을 위한 세미나”

취업유지모임에서 가장 오랜시간동안 준비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심 및 취업욕구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다. 2011년 1월초 취업유지모임에서 강00회원과 이야기 하던 중 이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향을 탈피하여 오랜 취업경험과 라이프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던 것이 취업유지모임 '햇살'에서 준비한 것이 이번 세미나이다. 첫 제안에 흔쾌히 하겠다고 하던 강00회원, 주말에 도서관을 다니며 자료를 정리하고 취업유지모임 MT에서 사전연습을 하면서 첫 강의준비에 열을 올렸다. 늦은밤, 열을 올려가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빠져들게 만들었다.

행사당일!

금천구정신보건센터에서 세미나 당일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간식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자리를 정돈하는 등 일사천리 하게 일이 진행되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금천구정신보건센터, EM실천에서 참석한 30여명의 참석자들은 강의내내 집중했고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높은 관심도를 표현하였다.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84% 이상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준비했던 취업유지모임 '햇살'의 멤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런 기회를 더 만들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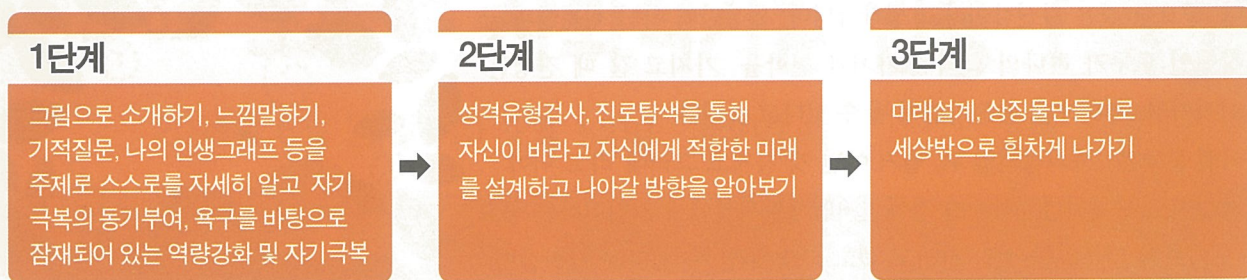
2011년 6월 취업유지모임 햇살에서 준비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심 및 취업욕구향상을 위한 세미나는 우리의 이런 도전이 정신 장애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감과 자립의 의지를 높일수있길 바래본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잘하리라...

“근로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기극복을 통한 미래설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올해에도 근로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우편발송훈련 "SPEED DM"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할수있었고 올해엔 좀더 심도깊이 생각하며 진행되는 “근로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기극복을 통한 미래설계”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예산 : 지원금 2,400천원 • 지원기간 : 2011년 5월~10월
- 진행내용



“근로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기극복을 통한 미래설계”는 만성근로정신장애인의 의식을 자극하여 현재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변화시켜 행동하는 개인으로,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이 근로욕구나 의지가 약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참된 의미를 실현합시다.”



EM실천 원장 **김영환**

서울형(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지 1년 4개월만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대세가 되면서 많은 교육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일으키듯이 불과 3년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윤획득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나눔과 함께 라는 기업가치’를 지향한다는 철학을 갖고 2009년도부터 직원들과 첫 이야기를 나누는 2여년 만에 얻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선배들에게 많이 조언도 구하고 준비도 철저히 했지만 늘 우리도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유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지금도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EM실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고민중이며 진행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만이 아닌 직원들과 근로장애인 모두가 하나의 합의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갈 때 진정한 사회적기업, 착한기업, 좋은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기업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기업이라는 중요한 모티브를 얻은만큼 정말 잘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시작 전 근로장애인 직원, 운영위원들과 함께 조출한 사회적기업 인증 기념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의 조출한 축하파티였지만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EM실천의 도약에 추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EM실천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EM실천은노동부사회적기업 2011-8호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2일

EM실천의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축하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제2차 운영위원회엔 최병태운영위원장님을 비롯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태섭(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박태준(노무법인 한길 경영지도사), 장재원(EM실천 가족대표)운영위원님이 함께 하여 노동부사회적기업 2011-8호로 선정된 EM실천 전종사자와 근로장애인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EM실천



노동부사회적기업 날개달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요 즘은 사회적 기업이 대세다. 공익광고는 사회적 기업을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일”이라고 소개한다.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기업”이다. 사회적이란 개별적이지 않고 집합적이라는 의미이며,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업이라 함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는 조직을 말한다. 얼핏 보면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취향의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는 경쟁력 높은 기업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취약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도 간절히 필요하다. 또 시민의 자선과 봉사에 의존하여 공익적인 활동을 해 왔던 영세한 조직들도 당당하게 기업의 간판을 걸고 정당하게 영업하고, 영업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투자하는 위업 있는 존재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런 주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조직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여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조달하고, 이 수익금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조직이나 시설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한편으로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엠실천이 이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칭호를 당당히 받게 되었다. 참으로 뿌듯 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이엠실천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EM실천은 2000년에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그마한 작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었다.

이엠실천의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이제 단순한 사회복지시설인 보호작업
장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
하게 되었다. 영세하고, 의존적이고, 시혜적
인 이미지와 결별하고 자신감 있고, 경쟁력 있
는 기업의 이미지를 당당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
다. 고용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당당한 근로자
로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 이엠실천은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인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첫째, 고용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일반
고용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개별적인 역량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과 같은 운영구조를 점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작지만 소중한 지역사회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미
지를 개발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인쇄 전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따뜻한 조직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역량 있는 인쇄·출판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망과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봉
천동 골목길 건물의 지하에서 출발한 이엠실천은 이제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해 있는 당당한 업체로 성장하였다. 참으
로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이었다. 지금까지의 성장만으로도 기립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계
기가 만들어 진 것 같다. 이엠실천의 사회적 기업 인증은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이미지와 성과를 만들기 위
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엠실천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바
란다. 그래서 다시 10년 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토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뚝 선 착한기업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기분 좋은 기대를 해 본다. 더불
어 기립박수도 함께.



“위대한 개츠비”

추천인 : 우편발송부 경향미



닉은 미국 중서부에 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써 제 1차세계대전에 참가, 제대후 동부로 공부를 하러간다. 그곳에서 닉과 육촌인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인 톰(닉의 대학시절 친구)을 만난다. 한여름 닉이 이들의 집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집은 하얀 저택이고 톰은 20세의 갑부였고 30대 나이로 풋볼선수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닉은 또한 롱아일랜드라는 해협에서 몇마일 안되는 곳에 집을 얻었는데 바로 옆집에 개츠비란 사람이 항상 파티를 열어 그곳에 초대가 된다. 이곳에서 닉은 데이지의 친구인 조던 베이커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입에서는 개츠비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나돈다. 개츠비가 그렇게 파티를 여는 이유는 몇 년전 사랑하다 헤어진 데이지를 찾기 위함이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서로 첫사랑이었고 개츠비가 소령으로 전쟁에 참가후 퇴역

하고 옥스퍼드대학으로 가면서 데이지에 대한 소식을 알수 없게 되었고... 데이지는 이후 톰을 만나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프랑스로 건너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조던베이커와 닉은 드디어 둘사이를 알게되고 닉의 집에 데이지와 개츠비를 초대하였다. 비오는 어느날 닉의 집에서 만난 데이지와 개츠비, 긴장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데이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후 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지만 개츠비의 집에 또다른 누군가가 찾아온다.

* 경향미님의 추천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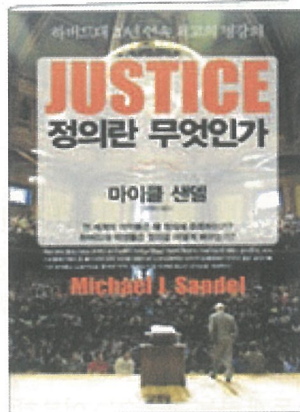
주인공인 데이지와 개츠비의 슬픈사랑이야기로 누군가와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개츠비라는 책은 시대적 배경이 화려하고 부유한 미국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부와 명예보다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나도 개츠비와 데이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누군가와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추천인 : 총무기획팀장 박미선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테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윌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디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요소에 행복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정의를 논의한다. 하지만 정의란 개념은 그 의미의 사전적 정답은 없다. 상황은 변하고 민중의 의식도 변화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과 한국시민들이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정의’에 배고파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정의’를 책 전체에서 분배의 원칙 하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대신 ‘정의’의 개념 성립에 대한 수십개의 예제들을 제시하는데 이 수많은 예제들은 샌델이 제시하는 정의론들과 뒤엉켜서 오히려 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달하게 되는 ‘공

동의 선’이란 개념은 끝이 막혀있는 ‘정의’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그러나 샌델은 ‘정의’ 긍정론자로서 우리의 논의가 현실보다 더 성숙된 개념의 ‘정의’로 향해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책 전반에 깔려있는 ‘선’을 향한 우리 가슴속의 인간으로서 본성적 감성이 이성적 정리와 함께 ‘정의’를 향한 우리의 인생사란 것이 암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텍스트는 책으로 읽는 것 보다는 강의로 듣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려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제시된 사례가 안고 있는 상반된 가치와 문제를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 vs 평등’, ‘개인의 이익 vs 공공의 이익’, ‘성장 vs 분배’,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정치’와 ‘도덕적 삶’ 등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와 문제들을 생각해보면서 정의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지식의 근간이 얇은 나를 발견

하게 되어 실망하였지만, 적어도 정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인 가치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게함으로써 나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항상 결단을 하는데 있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잡힌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해야함을 깨우쳐주었다. 비록,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위의 두 가지의 깨달음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사회를 살아갈 나를 더욱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나뿐만이 아닌 다른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름이야기

“더워야 더워야”

수박 등 과일-물 자주 섭취

폭폭 찢는 듯한 더위, 며칠씩이나 계속되는 열대야. 심신이 지치고 있다.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빠진다. 의욕은 감퇴되는 반면 불쾌지수는 높아진다. 10년만의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철 먹거리를 알아본다.

단백질을 지켜라.

여름철 피곤과 무기력감의 원인은 단백질 부족 때문이다. 땀 흘리고 운동할 때는 우선 글리코젠(포도당의 저장 형태)이 사용되고 이후에는 단백질이 소비되는데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의 소비가 늘어난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된 두유, 두부, 콩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이 있다. 특히 입맛까지 돋게 하는 콩국수는 여름철 음식으로 제격이다. 메밀국수나 냉면도 여름철 인기 식품이지만 단백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는 것은 금물이다. 여름철 피로회복,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단백질을 풍부히 섭취해야 한다. 보신탕이나 삼계탕 등 보양식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 먹거리. 하지만 단백질 가운데서도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것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삼계탕은 닭고기의 껍질을 벗겨서 조리하고 국물을 반 정도만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이며 에너지 소비량은 15~20%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비타민, 무기질을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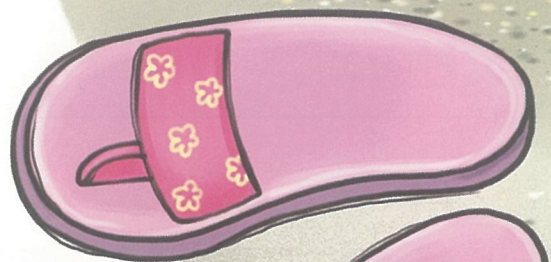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이 소모되는 영양분 가운데 하나. 땀을 통해 수분과 무기질, 비타민 BC 등이 배설되기 쉽다.

이를 보충하는 데는 과일이 필수다. 수박은 약 90%가 수분이지만 비타민B1-B2-C, 칼륨, 인,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포도당의 원천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참외 역시 여름철 탈진 예방에 그만이다. 비타민C의 함량이 높고 칼륨이 많아서 수박과 같은 이뇨작용을 한다. 열량도 100g당 26~31kcal로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은 항암작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는 자연산 피로회복제다. 인체에 흡수가 가장 빠른 포도당을 갖고 있다. 짙은 맛을 내는 타닌은 바이러스나 충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검은색 껍질 속에 든 색소 안토시아닌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스피린보다 10배나 강한 소염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물은 자주, 소금은 멀리.

갈증은 단순히 입과 목구멍의 점막이 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체조직에 수분이 결핍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갈증은 늦게 나타나서 빨리 사라지는 게 특성이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지나서 탈수상태에 이르러야 갈증이 나타나므로 그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 땀으로 빠진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여기에 소금을 먹으면 목이 더 탈 수 있다. 굳이 소금을 먹어야 할 경우엔 물과 함께 마시도록 한다.



NEWS

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근로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기극복을 통한 미래설계”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기금사업지원으로 선정된 본프로그램은 1, 2회기로 진행되며 1회기는 7월까지, 2회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EM

실천에서 장기근로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의 자기설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기근로에 대한 강점은 있으나 근로과정에서 나태해진 자신의 미래설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이 근로장애인의 자기관리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신규프로그램 ‘한자야놀자’

2011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카데미교실로 첫 강좌가 시작되었다. EM실천에 근로장애인들은 대부분은 고졸이상에서 대졸이상으로 학력이 높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했으나 정



신질한 발병후 진로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나 활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도 무감각일때가 많다. 한자야 놀자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 근로장애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한자능력시험에 도전하는 5명의 도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소식지에 자격취득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정 : 6월~10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1시

조은세상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매년 우리끼리 체육대회로 진행되었던 체육대회, 2011년 6월 3일 한울법인산하 조은세상과 연합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참여인원 : 60여명

장소 : 디지털운동장 EM실천이 주관하고 진행된 체육대회지만 먼곳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조은세상 정미아원장님이 하 모든 직원, 근로장애인들에게 감사드리고 2012년 다시한번 땀흘리는 체육대회에서 만나요.



교육

금천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일시 : 2011. 4. 4(월) *장소 : 구청 대회의실

2011.4.4 '금천구 사회적 기업 세미나'

김영환원장님, 임성수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금천구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금천구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금천구는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1.6.10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교육에 박미선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본 교육은 실무에 종사하는 원장님들의 강의를 통해 좀더 현장감있는 교육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2011.6.18 '책은 미래를 보는 천개의 눈'



주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국제도서전에 이진숙디자인팀장, 김지현디자인이님이 다녀왔습니다. 바쁜 주말에도 자기 개발과 새로운 디자인개발에 노력하시는 모습 멋지네요.

운영

2011.6.17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의 재무회계 및 예비 사회적기업인사관리 등에 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2011.6.21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정기지도점검

매년 상반기 정기일정중에 하나로 2010년 EM실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여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2011.6.2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성분석 및 발전방안관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성분석 및 발전방안관련 연구』모임에 박미선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EM실천의 생산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업체소개

• 우편발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너지' 책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홍보안내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서울문화재단)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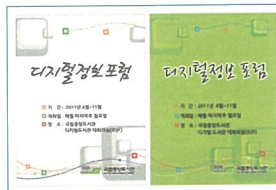
• 인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교육자료,
서울대공원 티켓, 신용보증재단 책자



• 현수막

국립중앙도서관



노동부 사회적기업 (5개소)

“사람과 환경을 생각 하는 정직한 기업”

(주)심원테크

(주) 심원테크는 조달청
우수제품사로 인증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생산업체로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고품질의 제품
을 생산하는 환경친화적 재제조 기업입니다. 디지털 분
야의 최고 품질만을 고집하며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어울림”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
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신나는문화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연, 체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
니다. 현재 금천구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금천 지역의 문화
예술을 일구고 있습니다.

“담힐리며 일하는 신나는 일터” EM실천

EM 실천은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의 역량강화
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자 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주요생산품인 인
쇄, 디자인, DM발송, 현수막 사업을 원스톱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고객편의를 최상으로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기
업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해든디자인플러스

해든디자인플러스는 장애
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
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설립하여 판촉물, 광고, 기획, 중철·제본 등의
인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의 디자인과 인쇄 품질로 보답하는 기업”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

(사)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은 디자인작업, 편집작업, 읍셋인쇄, 경인쇄
등 인쇄물 관련 모든 디자인 및 편집작업을 통한 단행본
책자, 카달로그, 카렌다, 쇼핑백, 포스터, 결산서 등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9개소)

“일과 가정의 양립사 회 실현을 위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 사업단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사업단은 방과후 학생들의 도시락 · 간식을 조리해 배
송하고, 맞벌이 부부 및 지역주민을 위해 밑반찬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미&수는 “안전한 식재료/ 저염 · 저지방 건강식/적정한
가격/당일조리 · 배송” 원칙을 따릅니다.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여 정직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월4000원에 배터리 걱 정없”

(사)한국장애인케어협 회 케어맨 기업단

(사) 한국장애인케어협회

케어맨 기업단은 그동안 배터리 교체비용에 경제적 부
담이 많이 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본 케어맨에서는 그
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저렴한 회원 가
입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드리기를 위하여 본 회원제로 운
영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어른 공부방” (사) 살구회 사업단

(사) 살구회 사업단은 금천
구내 성인대상으로 개인,
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한글, 영어, 수학, 컴퓨터, pop 등을 가르쳐 드리는 방문교육
서비스 사회적기업입니다.

“지역문화센터와 함께 하는 앙상블”

중앙국악예술협회

중앙국악예술협회는 1987
년에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시대 흐름에 맞는 국악관현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공연 ‘춤추는 관현악’은 우리 민요를 바탕으로
‘Digital Sound’를 접목하고 연주자들이 춤을 추는 등 남
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진정한 우리 음악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믿음 먹거리” 주) 이그린 에프앤비

(주) 이그린 에프앤비는
최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어머니 손 맛 그대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밑반찬을 중심
으로 친환경 잡곡과 시리얼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9개소)

“행복한 학교 지킴이단” (재)청예단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실 (재)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이하, 청예단)은 비



영리 시민단체로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해 전국 학교폭력상담 및 긴급출동서비스인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교과부 지원) 및 수강명령프
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 UCC 및 SNS 사용 법 교육”(민)클린콘텐츠국 민운동본부

클린콘텐츠 운동본부는
21세기 영상미디어 환경

에서 우리에게 정서적 함양을 도와주고 교육적이고 유
익한 클린UCC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이를 트위터와 페
이스북 및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과 제작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건강한 미디어사용과 건전한 콘
텐츠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추구합니다”

(주)프라임 서비스

(주)프라임서비스는 고객
감동과 고객 만족을 최고 목



표로 하는 경영철학으로 깨끗한 자연과 같은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소대행, 청소용품, 청소장비, 사업부를
운영하고, 지역 내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칠보공예체험, 문화상품” (사)한국칠보공예협회

(사)한국칠보공예협회는 한국의 문
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취약계층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회로써

기관, 기업체등의 VIP선물용 및 판촉용 문화상품을 생산
하며 칠보테라피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집중력,
창의력 향상 및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금천global community” 커피로드와
“도심 속 목공마을” 아임우드 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EM실천 새로운 일꾼을 모집합니다.

- 등록장애인 만 18세 이상 ~ 55세 미만
- 일할 의욕이 있는 분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중증 장애인생산품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으며 30명의 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이 함께 일하는 착한 기업 입니다.

EM실천은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 인쇄**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 우편발송 대행, 현수막인쇄 등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 의 : 02-875-9744, 9733

EM실천 후원안내

EM실천은 🏠 사회복지법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실천의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있길바랍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예 금 주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자원봉사 모집 안내

"봉사는 나누면서 내가 더욱 살찌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한번만봉사를해도 괜찮을까? 이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01 내 · 외부 행사 보조 지원
- 02 일거리 작업참여
- 03 전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식

2011. 6. 27(월) 18:30

금천구청



“금천구 사회적기업”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해든디자인플러스	판촉물, 광고, 기획, 제본 등 인쇄업	☎ 2235-1205
(주)심원테크	재제조토너카트리지 생산, 판매	☎ 2627-5650
신나는 문화학교	예술교육, 공연, 체험활동	☎ 857-8209
EM실천	인쇄, 디지털 복사 · 제본, 현수막, 우편발송, 디자인	☎ 875-9744, 9733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	☎ 6401-8891
남부여성발전센터 미&수	반찬사업	☎ 802-0922
(사)살구회 어른공부방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 실시 및 시설 이용	☎ 895-5973
(주)이그린 에프엔비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 식자재납품 등	☎ 868-8020
(사)장애인케어협회	장애용품 판매 및 A/S	☎ 3280-7755
중앙국악예술협회	지역문화센터와 함께하는 국악교육사업 앙상블	☎ 896-2091
(재)청예단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 585-0098
클린콘텐츠운동본부	클린UCC제작 및 소셜미디어 교육사업	☎ 501-7234
(주)프라임서비스	중소기업 내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2060-2290
(사)한국철보공예협회	전통 철보공예품 제작 및 체험 활동지원	☎ 2026-0548